아콜루씨아

ΑΚΟΛΟΥΘΙΑ 따름

In This Issue

계시록 7교회 5강
사데 교회
송병학 이사장

온누리교회 비전트립
내 인생 최고의 여행!
온누리교회 이재형 집사

부활절 홈스테이 체험
"예수 부활하셨다"
김민수 연구위원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O. +30 210 996 8186
M. +30 698 836 1900
E. holylandgreece@gmail.com
A. Voriou Ipirou 58, Glyfada, 165 62, Athens. Greece
W. holylandgreece.com

이슬람의 방파제인 그리스!!

그리스는 이슬람의 유럽 진출을 막는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는 그리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는 국민의 95%가 기독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강력한 기독교 국가인 그리스가 막고 있지 않다면 튀르키예를 통해서 이슬람은 더 빨리 전 유럽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수세기 동안 그리스를 정치적으로 지배했으나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 유산만큼은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종교와 문화를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두 번째 힘은 그리스 국민의 강한 국가적 정체성과 자부심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종교에 대한 애정이 억압을 이겨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종교인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영적 지침을 제공하고 그리스 국가 및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봉사하면서 압제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인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의 전통, 관습, 언어를 보존하고 세대를 넘어 공동체 의식과 연속성을 키워냈습니다.

현재에도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을 깊이 믿는 신앙이 투철할 뿐 아니라 교회와 사제를 향한 애정과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스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암흑기에도 기도의 불빛을 꺼뜨리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지리적 조건입니다. 수많은 섬과 산악 지역으로 구성된 국가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문화 및 종교 관습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자연 장벽은 그리스 공동체와 전통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여 고유한 문화 유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21년부터 1830년까지 발생한 그리스 독립 전쟁은 그리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그리스 국가의 설립과 오스만 통치의 종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의 독립과 주권 회복에 대한 열망은 강한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 그리고 그리스의 역사적 유산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독립 후 그리스는 국가 건설 과정에 착수하여 언어와 교육, 문학 및 예술을 부흥시키고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스 문화 유산의 보존과 기념이 중심 과제가 되어 과거와의 통일감과 연속성을 키워나갔습니다.

오스만 통치가 언어, 요리 및 건축을 비롯하여 그리스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쳤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스에서 종교와 문화를 생생하게 유지한 힘은 외부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유산을 유지하려는 그리스 국민의 회복력과 결단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에 지배되는 기간 동안에도 기독교를 지켜낸 그리스는 이슬람의 확산을 막고 있는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면면히 지켜오고 있는 그리스는 선교의 최전방 지대에서 든든한 복음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에서 문화를 통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계시록 7교회 6강
사데 교회

이사장 송병학 목사 (휘경교회)

아르테미스 신전과 사대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사데(Sardis)는 사르디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데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리디아(Lydia)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터키 서부에 위치하며 이즈미르(Izmir)에서 약 72킬로미터(45마일) 남쪽에 위치한 사데는 그 옛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고고학 유적지로 유명합니다.

사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주변 계곡을 내려다보며 높은 고원에 자리한 고성입니다. 고성에는 기원전 4세기 경에 건설된 아테나 신전이 있으며, 당시 가장 큰 이오니아 신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축물은 체육관입니다. 이 거대한 복합시설은 교육의 장으로서 지식과 신체적 활동을 위한 집합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강당, 도서관 및 운동 시설 등 다양한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데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로 유명하였으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금과 은의 생산으로 유명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초기의 동전을 주조했습니다. 부유한 재능으로 알려진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Croesus)가 사데를 통치했던 번영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데는 역사 동안 다양한 지배자와 쇠퇴 기간을 겪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인,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을 거쳐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파괴적인 지진을 겪고 결국 중요성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사데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유적지를 탐험하면 고대 건축물의 흔적을 직접 목격하며 이 지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굴 현장에는 지역 박물관에 전시된 주목할 만한 유물들도 있습니다.

사데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주변 지역을 돌아보는 건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이곳은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사리흐리에는 순례객을 위한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사데는 고대 도시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으며, 아테나 신전과 같은 고고학적 유적은 옛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계3:1,2)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부자라서 자신만만하고 교만한데, 비록 겉으론 번지르르해도,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임을 나는 다 안다.”

(너 돈 좀 있다고, 성공한 자식 뒀다고, 지위가 높다고 교회에서 우쭐대며, 믿음이 좋은 것처럼 으스대는데, 난 네 신앙이 죽어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넌 끝났어!”)라는 두려운 선언입니다.

사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사데교회가 아닌 소수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3: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지역이라 교회는 초라했지만, 그러나 소수의 교인들은 대담하게도 거대한 아데미 신전 입구에 교회를 건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용감하게 예배했습니다.

목숨걸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는 자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데의 복합 체육 시설

사데교회 유적이 주는 교훈

1. 기독교에 관심도 없고, 깔보고 무시하는 부자들의 도시에서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장엄한 아르테미스 신전 입구에다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렸던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오늘날 돈과 명예와 부유함을 좇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 한국 사회와 특별히 대표적인 세속 도시인 서울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데교회가 주는 교훈은 결코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3. 오늘 사데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나는 겉으론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실은 죽은 교회, 죽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깊이 반성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4.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 쉽게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 비전트립 후기 (2023년 6월 14일 ~ 6월 20일)

: 내 인생 최고의 여행!

온누리교회 이재형 집사

"왜 하필이면 성지순례?" 올해 초, 아내가 '비전트립' 얘기를 꺼냈을 때 내가 보였던 첫 반응이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3년 이상 미뤄왔던 해외여행, 게다가 65세 정년퇴임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도 달랠 겸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참에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가자고? 솔직히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어떻게 핑계를 댈까 궁리하던 차에 아주 확실한 이유를 쉽게 찾아냈다. 나로서는 일정 맞추기가 불가능했다. 원래 일정을 보면 이번 다녀왔던 일정보다 며칠 일찍 시작되는 걸로 잡혀 있었는데, 그 일정이라면 나는 이번 학기 강의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내와 별다른 갈등없이 자연스럽게 아내 혼자 가는 것으로 일찌감치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이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얘기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세웠던 핑계의 벽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상황이 그렇게 바뀌면서 나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었다. 그 동안 나는 성지순례는 독실한 신자들 만이 가는 걸로 생각했고 내 스스로 '안개교인'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저 남 얘기처럼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면서 성지순례에 대한 호기심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교 측 그리고 학생들과 협의한 끝에 온라인 강의도 끼워 넣기도 하고 기말고사 일정도 변경하면서 이번 여행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를 기다렸다. 결과적으로 나의 마지막 학기 강의 일정에 단 하루의 차질도 없이 이번 '비전트립'에 참가할 수 있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자의 반 타의 반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이번 여행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참가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은혜란, 사도 바울에 대한 나의 선입관을 깨끗하게 씻어버린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성지 순례 이전에는 나는 나의 얕은 성경 지식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 그다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직접 선택한 12명의 사도가 아닌 자칭(?) 사도가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을 통해 그리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직접 목격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이번 여행을 복습하면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나의 선입관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생전에 선택하신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선택하신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선입관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스 도착 첫째 날 '고린도' 유적지와 '겐그레아' 방문, 둘째 날 '파트라'에 있는 '안드레 순교 기념교회'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를 떠나 겨울을 보냈다는 '니고볼리', 셋째 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나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메테오라 수도원', 넷째 날 '베뢰아'와 그리스 제2의 도시 '데살로니카', 그리고 마지막 날 사도 바울이 유럽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첫 발을 디뎠던 '네압볼리'와 본격적으로 전도활동을 시작한 '빌립보'와 '루디아 기념교회'를 방문하는 등 닷새 동안 많은 곳을 다녔다. 이번 '비전트립'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 여기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활동을 하면서 심어 놨던 크고 작은 수많은 발자취를 보고 느꼈고 또 직접 밟아 보기도 했다.

인생 1막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인생 2막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힘과 지혜를 간구한 순례길

나는 물론 유명하고 큰 유적지에서도 많은 감동을 느꼈지만 자칫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유적지에서 더 큰 감동을 느끼고 돌아온 여행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첫째 날 방문했던 '겐그레아'에서 큰 감동은 아직도 가슴 한 가운데 남아 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가기 위해 출항했던 '겐그레아'는 고린도 지역의 작은 외항으로 외딴 작은 해안가에 있다. 막상 가보더라도 가까이 가봐야 겨우 보이는 몇 점 남지 않은 돌로 된 구조물이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에 걸친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서원'을 모두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기 위해 머리를 깎았던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다. 에베소를 향해 출항을 하면서 감회 어리고 결의에 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머리를 깎지는 않았지만 나도 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 30여 년 간의 나의 일생 1막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나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지켜 주셨던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감동을 받았던 작은 유적지는 이번 여행 마지막 날 방문했던 '네압볼리'였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래 계획했던 여정을 변경한 후 유럽지역에 처음 도착했던 해안가의 작은 마을 '네압볼리'. 원래 계획에 없었던 유럽지역 선교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걱정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담과 걱정을 물리치고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귀국을 위해 튀르키에로 이동하기 전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네압볼리' 해변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내 발과 손을 직접 담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나의 인생 2막의 시작을 앞두고 밀려드는 부담감과 걱정을 없애 달라고 기도했고 새로운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

이번 비전트립은 나의 일생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내 몸을 맡기고 참가하게 된 이번 여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일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비전트립' 후기를 마치고자 한다. 이번 여행을 무사히 잘 이끌어 주신 온누리교회의 여성민 목사님과 박성천 목사님, 그리고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중간에 짬을 내셔서 닷새 동안 이번 여행을 함께 하셨던 김태연 목사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도 김태연 목사님의 재미있고 구수한 사투리가 귀에 쟁쟁하다. 덕분에 이번 '비전트립'은 여성민 목사님 말씀 대로 "Relax and Enjoy"를 충분히 달성한 여행이었을 뿐 아니라 일생일대의 "Good Memory"를 얻은 여행이었다. 같이 동행한 27분 온누리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획:수도원탐방

성 파나기아 블레체나 수도원

ερά Μονή Παναγίας Βλαχερνών

성 파나기아 블라체나 수도원은 그리스의 코르푸(Kerkira) 섬에 위치한 소중한 종교 유적지입니다. 좁은 둑길로 본토와 연결된 작은 섬에 자리 잡은 이 수도원은 역사적, 문화적, 영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수도원의 기원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정확한 건립 날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도원은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되었으며 수세기 동안 순례객의 숭배 장소였습니다. 수도원의 이름인 블라체나는 중세 시대에 이 지역에 거주하던 목가적 공동체인 "Vlachs"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 파나기아 블라체나 수도원의 배경은 목가적입니다. 고요한 청록색 바다와 무성한 녹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오니아 해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여 고요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수도원은 붉은 기와 지붕, 눈에 띄는 종탑 및 생생한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단일 본당 교회가 특징인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의 눈에 띄는 특징은 바다로 뻗어 있는 나무 부두입니다. 그림 같은 다리는 영적 영역과 지상 세계 사이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방문객들은 부두를 따라 걸으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평온함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서면 경외심과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교회 내부는 비잔틴 양식의 아이콘, 종교 그림, 복잡하게 조각된 나무 아이콘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과 은은한 향이 기도와 묵상에 좋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방문객들이 그들의 영성과 연결되고, 그들의 신앙을 반성하고,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도원 옆에는 성스러운 그릇, 의복, 원고, 성상 등 종교 유물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 파나기아 블라체나와 관련된 역사, 종교 관습 및 문화 유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잘 보존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이 귀중한 유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나기아 블라체르나 수도원은 영적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잔잔한 물에 반사되는 수도원과 함께 엽서에 나올 법한 배경은 일년 내내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수도원 경내를 탐험하면서 방문객들은 잘 관리된 정원을 거닐며 향기로운 꽃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성 파나기아 블라체나 수도원)

수도원은 특히 성모 승천 대축일과 같은 종교 축제와 행사 기간 동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행사는 정교한 종교 의식, 행렬 및 현지인과 방문객을 모으는 문화 행사로 표시됩니다. 생생한 색채, 전통 음악, 진심 어린 헌신으로 섬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파나기아 블라체르나의 주변 지역도 방문객들에게 사랑 받습니다. 폰티코니시 섬이 가까이 있는데, 작은 크기와 생쥐를 닮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종종 "마우스 섬"이라고 불립니다. 이 작은 섬은 그리스도의 변모를 기리는 매력적인 예배당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파나기아 블라체나 수도원을 방문하는 것은 건축물과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깊은 영적 전통과 문화 유산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곳은 역사, 신앙,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이 사색, 영감, 내면의 반성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초대하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성 파나기아 블라체나 수도원은 종교적 헌신, 건축물의 화려함,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코르푸 섬의 소중한 보석입니다. 신성한 분위기, 풍부한 역사, 그림 같은 환경은 심오한 의미가 있는 목적지이며 그리스의 문화 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가는 방법

1. 항공 이용: 그리스 외부에서 여행하는 경우 코르푸에 도착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항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오아니스 카포디스트리아스 공항으로도 알려진 코르푸 국제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운항합니다. 공항에서 택시, 버스 또는 렌트카를 타고 수도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2. 페리 이용: 이미 그리스 또는 주변 섬에 있는 경우 페리로 코르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페리는 Igoumenitsa 및 Patras를 포함하여 그리스의 여러 항구에서 운행됩니다. 페리 여행 시간은 출발지에 따라 다릅니다. 코르푸 항구에 도착하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수도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수도원

Ιερά Μονή Παναγίας Κασσωπίτρας

파나기아라고도 알려진 성모 마리아 수도원은 그리스 코르푸(Kerkira) 섬에 위치한 저명한 종교적 랜드마크입니다. 섬의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자리잡은 이 수도원은 역사적, 문화적, 영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수도원은 "오래된 성"으로 번역되는 팔래오카스트리차 마을 근처의 코르푸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세기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도원은 신앙의 보루 역할을 하여 신자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교육하며 쉼을 제공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수도원은 현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며 건축물은 건축 당시 유행했던 비잔틴 양식을 반영합니다. 이 단지는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본당, 보조 예배당, 수도원 감방, 도서관, 기도와 묵상을 위한 공동 공간 등 다양한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소식

예수 부활하셨네!
Χριστός ἀνέστη!
부활절 홈스테이 체험기

전문 연구위원 김민수 목사

그리스 최대 명절인 부활절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그리스의 최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의 설날과 추석처럼 부활절과 성탄절 연휴가 있고 학교는 약 2주 간의 명절 방학을 가집니다.

부활절 연휴에 그리스 친구 이사벨라로부터 초대를 받아 아그리니오라는 작고 조용한 마을로 2박 3일간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아그리니오 마을은 아테네에서 버스로 약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트리호니다 호수(Λίμνη Τριχωνίδα)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사벨라의 집에 도착해서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로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리스는 부활절 전까지 육류와 유제품에 대한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주로 해산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와 문화

성 금요일 밤에는 각 동네마다 위치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사벨라의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방문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교회 바깥에 많은 의자가 설치되어 그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부터, 교회 주변 가득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문화 깊숙히 기독교 정신이 심어져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성 금요일 밤 예배 때는 특별한 예전이 거행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형상화한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고 그 제단은 커다란 십자가와 함께 교회 바깥으로 나와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예수님의 수난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멋진 예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 제단에 입을 맞추며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온 예수님의 제단을 수많은 사람들이 뒤쫓으며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순례합니다.

성 금요일 저녁에 이사벨라 가족과 함께 아그리니오 시내 중앙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은 중앙 광장 근처에 있었는데 광장에서는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제의 설교가 스피커를 통해 마을 전체에 울려퍼졌고, 예배 후에는 커다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 제단이 뒤를 잇는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광장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며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그 후 광장에서는 구릿빛 불꽃을 화려하게 뿜어내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꽃놀이 역시 기독교 전통 문화 중 하나로, 그리스가 터키 지배하에 있을 때 이슬람을 믿는 터키에 대항하여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동안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장식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고 사진을 찍으며 구경하는 사람들로 광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성금요일 문화는 한국의 기독교 문화와는 달랐지만 그들의 역사와 신앙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직접 겪으면서 하나의 기독교 안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전야 예배와 행사

부활절이 되기 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 때 사람들은 저마다 양초를 가지고 교회에 모이는데 12시가 되기 직전에 양초에 불을 붙이는 예식이 있습니다. 초에서 초로 불꽃을 전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동네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큰 소리가 나는 화약을 터뜨립니다. 밤하늘에는 화려한 불꽃이 터집니다. 각 동네마다 위치한 여러 교회들이 터뜨리는 화약 소리에 온 집안의 반려견들이 깜짝 놀라 짖어댑니다. 교회 종소리, 화약 터지는 소리,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로 온 동네는 시끌벅적합니다. 이 모든 소리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교회로부터 부활의 불꽃을 전달 받은 사람들은 양초를 켠 채 집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집 현관에 도착하면 양초로 현관문 위에 십자가를 긋는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부활절 음식: 양고기 구이, 츄레키(τσουρέκι)와 굴루라끼(κουλουράκια)

부활절에는 그동안 육류와 유제품 금식에서 해방되어 온 가족이 모여 양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활절 점심 때에는 온 동네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뒷마당에서는 벌써 통구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4-5시간을 약불에 천천히 굽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벨라의 어머니께서 부활절 계란을 만드셨습니다. 삶은 계란을 붉은 색으로 염색한 후 장식하는데 장식할 그림을 계란 흰자로 붙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부활절 계란은 부활절에 각자 하나씩 잡은 후 계란끼리 부딪혀 깨뜨리는 대결을 합니다.

부활절에 먹는 빵으로는 츄레키와 굴루라키가 있습니다. 츄레키는 큰 부활절 빵이고 굴루라키는 작은 부활절 쿠키입니다. 이사벨라 어머니께서 직접 구우신 굴루라키는 아주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부활절 만찬을 함께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했고 따뜻했습니다.

부활절 인사

부활절 인사는 “크리스토 아네스티(Χριστός ἀνέστη)!”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 아네스티”라고 인사하면 상대방은 “알리소스 아네스티(Αληθώς Ανέστη)!”라고 화답합니다. 이 말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에 대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이사회

이사장

- 송병학 목사 : (휘경교회)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 나길 53

이사

- 김만준 목사 : (덕수교회) 서울 성북구 성북로 127
- 박봉근 목사 : (수산교회)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35-1
- 백상규 목사 : (신광교회) 서울 중구 동호로 27길 36
- 서은성 목사 : (상신교회)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14
- 박종숙 목사 : (전주중부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23-8
- 윤영호 목사 : (한마루교회)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22
- 정종락 목사 : (다산교회) 경기 남양주시 다산 지금로 16번길 88 (에일린의 뜰) 7102동 1706호
- 정진욱 목사 : (위대한교회) 경기 구리시 이문안로 115 송림빌딩
- 최원근 목사 : (경신교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86
- 홍세광 목사 : (성은교회) 구리시 갈매중앙로 184
- 이재우 목사 : (새움교회)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7가길 75
- 이진우 목사 : (영신교회)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 213
- 독고현 목사 : (휘경교회)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 나길 53

그리스 선교 & 성지 연구소
Holy Land Missionary Institute in Greece

우리의 후원으로 그리스에 복음이!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홈페이지
holylandgreece.com/donation → 신용카드(체크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후원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기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계좌로 송금 → 예금주 : 그리스선교&성지연구소
하나은행 : 278-910028-00304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약정서

성명 *　　교회명

Email *

주소

전화번호　　담임목사명

후원방식　　후원금액

ΑΚΟΛΟΥΘΊΑ | 6호 | 창간일 : 2021.12. 31 | 발행일 : 2023.06.30

그리스 선교 & 성지 연구소
Holy Land Missionary Institute in Greece
주소 : VORIOU IPIROU 58, GLYFADA, ATHENS, GREECE
전화 : +302109968186 모바일 : +306988361900
WWW.HOLYLANDGREECE.COM